Ⅴ. 結論

최초의 국민연금제도는 독일의 수상 Otto von Bismarck(1815 1899)에 의해 貧·富의 격차에 의한 사회혼란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1889년 社會保險속에서 도입되었다[41]. 이는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産業革命(Industrial Revolution)에 의한 산업자본주의 탄생과 그 歷史性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대의 고도성장 과정속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勞·使間의 葛藤, 貧·富의 隔差 深化 등 産業化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정부적 차원에서 완화하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1988년 '貧·富의 隔差緩和(즉, 소득재분배)'와 '퇴직후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제공'이라는 근본적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과정속에서 국민으로부터 信賴를 점점 잃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財政枯渴 문제는 국민적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대응한 연기금 재정안전화를 위한 제반 조치[42]는 근본적으로 收支均衡을 무시한 채 단순히 연기금 고갈 시점을 지연하는 短時的, 斷片的 보완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가 쉬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체제의 유지속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재정의 안정화를 확립하기는 더욱 어려우므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에

---

41)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주호·김진억,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연구보고서 98-7, p13, 보험개발원.

42) 최근 국민연금개혁의 기본방향은 연급급부에 의한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연급수급연령의 연장, 갹출율의 인상 및 기금운용상 공공성보다 수익성 강조로의 전환, 관리운영상의 비용효과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근본적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더욱이, 조만간 18세이상 전국민 1인 1연금체계의 확대구축은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국민의 呼應차원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최근 도시자영업자로의 제도확대가 發效되면서 소득파악불비 등 현안문제점에서 자산운용의 부실화, 저갹출-고급부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미흡하나마 주요국의 최근 연금개혁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상황에 적합한 民營化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부부분의 OECD회원국에서도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정부의 개혁의지와 국민의 공감대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치될 때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금번 연구보고서에서는 국민의 신뢰 제고와 금융환경의 건전육성을 위한 국민연금체제의 변경의 必要性, 변경을 위한 고려사항, 그리고 그에 적합한 진행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체제 변경을 위한 일정한 轉換期間을 설정하여 국민의 이해와 호응을 구하는 過渡期로 활용하여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하여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인별 저축기능을 可視的으로 분리함으로써 기능별 역할에 충실한 제도로 양분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연금은 기존의 적립방식에서 점진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며, 소득비례연금은 기존의 정부운영체제에서 민영부분으로 이양하여 건전한 사적 長期資本을 형성하여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영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국내에서도 복지문제는 대중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단

체등 시민운동단체들은 경제성장수준과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복지제도를 요구하려는 추세이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기본이 국민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운영의 透明性이 강하게 요구된다.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책입안자 및 제도관련 담당자들은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합리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정확한 분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개략적인 분석으로 본 보고서를 마무리한 것은 이 연구의 限界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를 계기로 훌륭한 보고서가 많이 작성되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을 위해 한층 혁신되었으면 한다.